

지상진료실

하악전돌증(IV)

악교정외과연구회

서울중앙병원 치과
김재승

단국치대병원
치과과장
김재승

○하악전돌증 심미적 관점 : 하악전돌증에 있어서 하악골체는 크고 전방으로 위치한다. 정면에서 볼 때, 얼굴전체길이가 길고 특히 안면하부가 그렇다. 전치부의 개교합 및 반대교합으로 자연스런 상태에서도 입술을 완전히 다물기 어려워 구순, 특히 하순에 긴장이 과도하고 상순은 저발육상태로 보인다. 하악전돌이 심한 경우 하악의 중심부(턱)가 비대칭이고 구치부에서의 반대교합으로 더욱 얼굴의 하관이 완강하게 보인다.

측면에서 볼 때, 아래턱이 전방 돌출되어 둔해 보이는 데, 하악우각부(gonial angle)가 둔각이고 아래입술과 턱사이의 주름(labio-mental fold)이 없어서 더욱 그렇다. 하악에 비하여 상악은 열성장

된 것처럼 보이고 코와 입술사이(naso-labial angle)가 정상보다 예각이다. 그리고 상악치아는 순측으로, 하악치아는 설측으로 경사되고 반대교합과 개교합으로 웃거나 말하는 경우 치아가 보일 때 심미적으로 더욱 불량하다.

하악전돌증의 심미적 치료에 있어서 얼굴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며 측면보다 정면의 심미성이 더욱 우선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치아와 교합을 포함한 악골·저작근계의 기능이 불편하지않고 만족스러워야 한다. 즉 심미적인 면의 강조가 기능적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신선한 아름다움은 건강에서 출발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완강한 안면하부가 개선되었고 labiomental fold가 회복되었다. 좌측으로 변위된 비대칭이 정상으로 되었다.



그림 2. 전체얼굴길이가 감소되었고 Nasolabial angle이 예각에서 정상으로 되었고 상·하
 순의 위치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SNA : 83°→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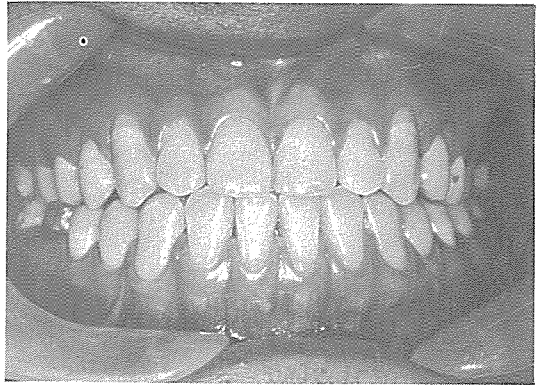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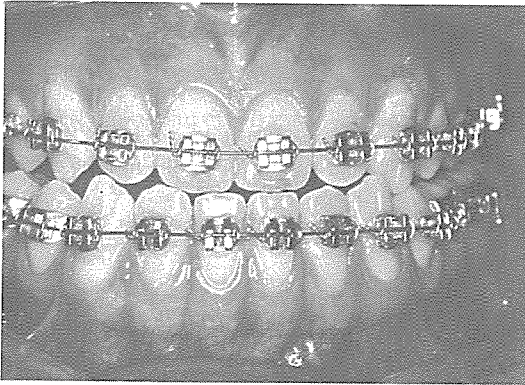


그림 3. 개교합과 반대교합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능적인 Interdigitation된 치아 및 교합 관계가 완성되었다.